

한 지붕 아래서 다 즐긴다... 런던너 '문화 사랑방'

<Londo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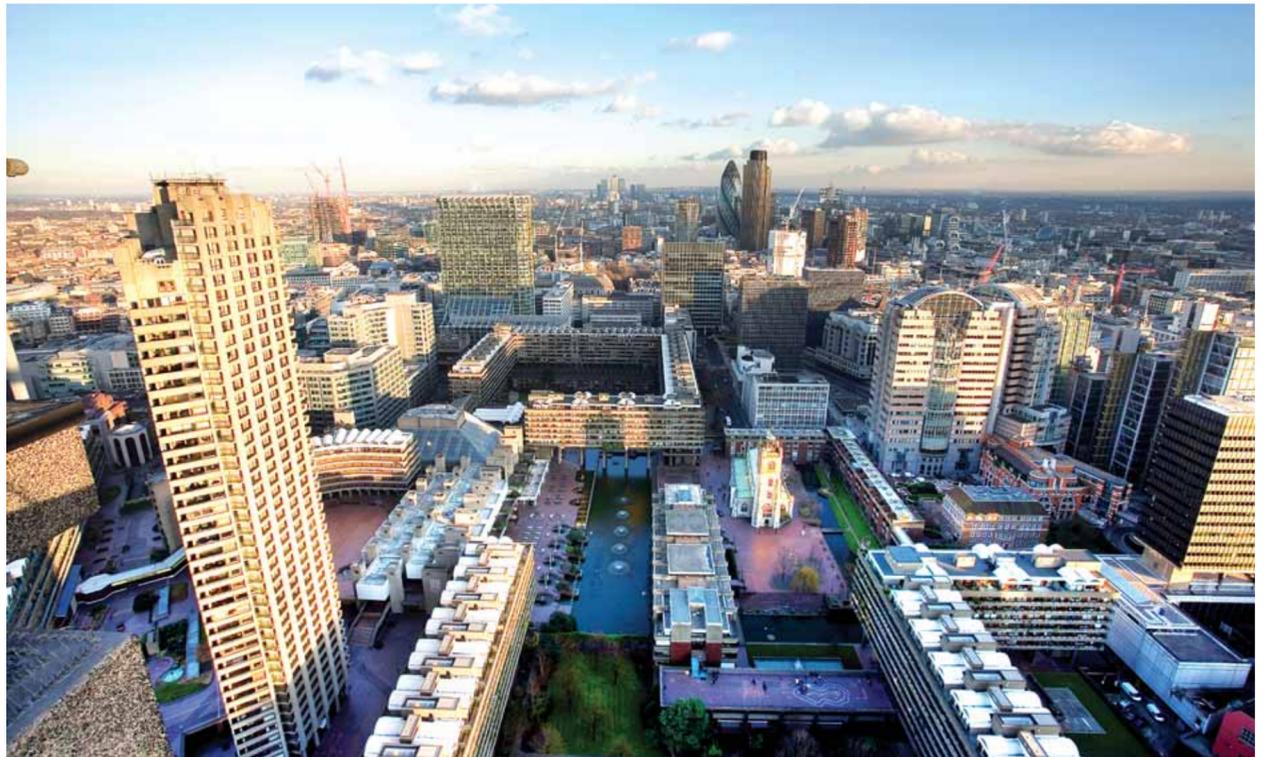
도시재생
문화가 해법이다

해외편 (15) 런던 바비칸 아트센터

런던 = 박진현 문화선임기자

런던의 금융중심지 '시티 오브 런던'(The City of London)에 위치한 바비칸 아트센터는 화려한 랜드마크와는 거리가 멀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처럼 건물 자체가 예술작품인 소문난 복합문화시설과는 달리 칙칙한 콘크리트 건물이었다. 입구에 바비칸 아트센터라는 간판만 없었다면 문화공간이라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투박하고 밋밋했다. 지난 2008년 미국 CNN방송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흉한 건물 10곳' 가운데 6위에 이름을 올렸더니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런 성급한 판단은 바비칸 센터에 발을 들여 놓는 순간 보기 좋게 깨졌다. '보잘것 없는' 건물 외양과 달리 내부는 아늑한 거실처럼 편안한 느낌을 주었다. 평일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미술관과 자료실에 수많은 사람들이 붐볐다. 시민들의 휴식을 위해 마련한 라운지와 로비에는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정겨운 풍경들이 펼쳐졌다. 자녀들과 함께 온 엄마들은 동화책을 읽어주며 즐거운 오후 시간을 보냈다. 말 그대로 런던너(Londoner)들의 문화사랑방이었다.



4만3000여 평에 이르는 바비칸 지구는 주거와 문화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쇠락한 도심을 되살려 낸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 바비칸 지구에는 바비칸 아트센터, 길드홀 음악·연극학교, 도서관 등 13개의 건물단지와 42층 규모의 건물 3동이 들어서 있다.



6500여 명의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바비칸 지구는 산책로와 수변공간을 조성해 삭막한 도시의 피로감을 해소해준다.



매년 전 세계에서 200만 여명이 찾는 바비칸 센터는 유럽 최대규모의 복합문화기관이다.

하지만 불과 50년 전만 해도 바비칸 지역은 전쟁의 상흔이 깊게 패인 버려진 땅이었다. 1940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공습으로 순식간에 속대발로 변하면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났다. 1851년만 해도 바비칸과 인근의 크리플게이트(Cripplegate)의 거주인구는 1만 4000여 명이었다. 하지만 100년이 지난 1951년에는 불과 48명만이 거주할 만큼 폐허로 전락했다.

런던시의 고민이 깊어지게 된 것도 그때부터였다. 일각에선 대대적인 개발로 어두운 과거를 말끔히 씻어내자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하지만 망루라는 뜻의 바비칸 지명에서 알 수 있듯 서기 405년 로마군대가 주둔했던 크리플게이트나 엘더스게이트에는 그 시절의 성벽과 망루 잔해가 남아 있었다. 런던시는 오랜 토론과 준비 끝에 이 지역을 주거와 문화가 숨쉬는 복합단지로 탈바꿈시키기로 결정했다.

무엇보다 도심 인구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상업이나 업무시설 위주의 재개발이 아닌 주거를 위주로 하는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잡았다. 상업위주의 재개발로 추진할 경우 낮에는 유동인구가 많지만 밤에는 인근의 베드타운으로 퇴근하는 직장인들로 인해 거대한 도심공동화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낮시간은 물론 야간에도 바비칸과 크리플게이트에 사람들이 머무는 실질적인 재생을 위해 챔블린, 파웰, 본 등 3명의 건축가에게 바비칸 일대의 재개발 프로젝트를 맡겼다.

이들은 기존의 지상 및 지하 철도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대한 공중보행로를 만드는 대담한 계획안을 제안했다. 보행자와 차량을 완전히 분리해 소음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쾌적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조권이 중요시되는 주거 등의 시설은 포디엄(기둥이나 벽을 지지하는 데 사용하는 주춧대)레벨 위에 배치하고, 주차장 등 일조권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시설은 포디엄 레벨 아래에 배치하는 등 입체적인 토지이용을 시도했다. 특히 이들은 로마시대부터 내려오는 성벽 잔해 등 역사적 유물을 그대로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주변에 산책로와 수변공간을 조성해 생활속에서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삭막한 도심생활로 인한 피로감을 씻어주는 도심속의 오아시스를 표방한 것이다.

이같은 '바비칸 복합지구(Barbican Complex) 재개발안' (바비칸 지구 프로젝트)은 당시 거센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정원이 딸린 단독주택이나 테라스 하우스를 선호하는 영국 사람들에게 고층 콘크리트 건물을 주거공간으로 조성하는 바비칸 지구 프로젝트는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것이 1950년대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의 영향을 받은 일련의 영국 건축가들은 서구의 미학적인 건축과는 동떨어진 야수적이고 기능주의적인 '브루탈리즘(Brutalism)' 건축을 계획안에 반영했다. 바비칸 지구에 들어서 13개의 건물단지(block)와 42층짜리 고층 건물들

바비칸, 2차 세계대전으로 폐허...50년전 48명 거주
'도심공동화 막자' 1959년 주거·문화 위주 재개발
아트센터, 1982년 오픈...전시·공연·영화 복합시설
매년 2200여개 이벤트...유료관객 110만명 달해
"동네서 세계 최고 문화혜택"... 인구 유입 증가세

물관, 길드홀 음악연극학교, 도서관 등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매년 평균 200여 만 명이 다녀가는 글로벌 랜드마크 자리잡았다. 웹사이트 방문자가 한해 평균 570만 명, 트위터 팔로워도 16만 명(2013년 기준)에 달한다. 매년 세계 최고 수준의 전시와 공연 등 2200개의 이벤트가 펼쳐진다. 유료관객은 110만 여명.

"한 지붕 아래서 모든 예술"을 표방한 바비칸 센터가 개관 30년 만에 영국의 문화허브로 뿌리를 내리게 된 데에는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이 있었다. 주거와 문화를 접목시킨 복합단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루이스 제프리스 바비칸 센터 예술감독은 "바비칸 센터는 폐허된 지역을 예술로 되살리기 위해 세워진 거점공간인 만큼 거대한 시설 안에 기초예술 공연장과 교육시설, 화려한 상업시설, 고층 아파트 주거시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설계됐다"면서 "문화생산과 소비, 교육과 상업, 주거 등의 이질적인 기능이 화학적인 결합을 통해 괄목할 만한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바비칸 단지내에 거주하는 2113세대 6500명의 주민들은 바비칸 센터의 단골 고객이자 적극적인 후원자다. 이들을 타깃으로 한 차별화된 예술교육은 바비칸센터의 미래 고객을 창출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알려지면서 바비칸 지구는 런던 시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거주지로 떠올랐다. 실제로 다른 구도심과 달리 이 지역은 매년 유입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루이스 제프리스 감독은 "자신들이 생활하는 주거지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건 바비칸 지구만의 특혜이자 매력"이라면서 "바비칸 센터는 복합문화기관이 도시를 어떻게 살려내는 가를 보여주는 귀중한 현장"이라고 덧붙였다.

/jhpark@kwangju.co.kr

※이 기획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취재했습니다.

길이 ~500cm, 10T 통나무 1개

식탁 · 좌탁 · 테이블 · TV · 침대 · 책상

통원목가구 저가 소나무가 아닙니다! 친환경 프리미엄 통원목가구 광주최초판매 (가정용/인테리어) 헐리웃/국내배우 인기상품 ☎1899-0240

홍스페이스 www.hong79.com 광주 동구 장동 58-15